

프로야구의 계절이 왔다

기다리던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외에서 40여일간 강도높은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KIA는 오는 17일 개막되는 시범경기에서 앞서 광주구장에서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을 조율하고 있다.

12일 광주구장에서 현대와 시즌 첫 국내 연습경기를 가진 KIA는 13일(현대)과 16일(SK-이상 광주구장) 두 차례에 걸쳐 연습경기를 벌인 뒤 시범경기를 맞이한다.

17일부터 열리는 2007 시범경기는 KIA-SK(광주), 삼성-한화(제주), 현대-두산(수원), LG-롯데(마산)전을 시작으로 4월1일까지 16일동안 팀당 14경기가 열린다. 시범경기 시작시간은 오후 1시이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없다. 입장료는 무료다.

KIA는 17일과 18일 광주에서 SK와의 2연전을 시작으로, 20~21일 LG전(마산), 22~23일 삼성전(광주), 24~25일 두산전(광주), 27~28일 롯데전(사직), 29~30일 한화(광주), 31일~4월1일 현대전(수원) 등 모두 14경기를 소화한다.

17일부터 시범 경기...팀당 14경기 KIA, SK와 첫 게임...입장료 무료

KIA는 이번 연습경기와 시범경기를 통해 내야 및 외야진 구성 등 최종 선발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1루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미정인 내야진. 당초 내야진은 1루수 장성호, 2루수 손지환, 3루수 이현곤(김주형), 유격수 홍세완이 유력했지만,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상태다. 3루수로 기대를 모았던 김주형은 들쭉날쭉한 타격감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감상선 질환으로 의병제대한 이현곤도 갑상선 치료로 피로감을 호소하

고 있다. 부실한 수비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손지환도 그 기량이 일취월장했다고 하지만 주전멤버로는 '2%' 부족하다는 게 코칭 스태프의 평가다. 서정환 KIA감독은 "내야진은 아직도 무한 경쟁중이다. 대상자는 많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는 선수가 부족하다"면서 "시범경기가 끝나봐야만 최종 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 정규시즌은 4월 6일 시작된다. 이날 잠실(LG-KIA), 대구(삼성-두산), 대전(한화-SK), 수원(현대-롯데) 등 전국 4개 구장에서 개막전이 펼쳐지는데

사상 처음으로 평일 야간경기로 열리고 개막전 시리즈도 2연전이 아닌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6개월간 열전에 돌입하며 팀당 126경기, 팀간 18차전을 벌인다. 올스타전은 7월 17일 열리고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한여름 야구 열기 고조를 위해 올해부터 초복(7월15일)과 말복(8월14일) 사이에 도입되는 서머리그는 팀당 23경기씩 총 92경기로 열린다.

서머리그 성적은 정규시즌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 기간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은 2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최우수선수는 500만원, 우수투수와 우수타자로 각각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블헤더(연속경기)가 없으며 경기 개시시간은 평일의 경우 구단 자율에 맡겨 오후 6시나 6시30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오후 5시에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연습경기 KIA-현대전 3회초 무사 1루 상황에서 현대 채중국의 유격수 땅볼 때 1루주자 전준호가 2루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급 선발-마무리' 콤비인 김진우와 한기주(이상 KIA)가 올 시즌 첫 국내 연습경기에서 활짝 공함을 선보였다.

선발 김진우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고, 마무리 한기주는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과시하며 2-1,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김진우는 12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현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피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투구 수 39개 중 스트라이크는 19개를 기록했고, 최고 구속은 142km로 전력 피침은 하지 않았다.

한기주 최고 구속 150km 'OK'

KIA, 현대와 연습경기 선발 김진우 3이닝 무실점

1회를 1안타 무실점으로 넘긴 김진우는 2회 유한준에게 좌전안타를 내주며 1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타자인 허준을 유격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뒤 다음타자 지석훈도 3루 땅볼로 유도, 첫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진우는 3회 들어서도 무사 1루서 채

중국을 유격수 병살타로 잡아냈고, 이어 이택근과 이승용에게 각각 중전안타와 볼넷을 내줘 자초한 2사 1, 2루서도 송지만을 유격수 플라이로 아웃으로 유도하며 이닝을 마감했다. 이어 던진 KIA 마블맨 이대진은 2이닝 2볼넷 3피안타 1실점했고, 정원일은 1.2이닝

무안타, 2탈삼진으로 호투했다. 원포인트 릴리프로 나선 신인 좌완 양현종은 1탈삼진, 신용운은 1이닝 1탈삼진 삼자범퇴로 현대 타선을 무력화 시켰다.

KIA는 0-1로 뒤진 8회 2사 1, 2루서 장성호의 좌익선상을 흐르는 행운의 2타점 안타로 승부를 뒤집었다.

9회초 등판한 특급 마무리 한기주는 첫 타자 허준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했으나, 지석훈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서한규를 유격수 병살타로 유도하며 경기를 마감했다. 한기주는 투구 수 12개 중 스트라이크 8개를 던졌고, 직구는 최고 150km가 찍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4이닝 1실점(비자책) 6K 로열스와 시범경기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세 번째 시범경기에서 등판해 삼진을 6개나 잡아내 선발 잔류에 청신호를 밝혔다.

김병현은 12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투산 하이 코벳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조시 포그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5회부터 마운드에 올라 4이닝동안 안타와 볼넷은 각각 1개, 2개만 내주

고 삼진을 6개를 빼앗겼다. 1점을 내줬지만 수비진의 어이없는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자책으로 기록됐다.

김병현은 이날 호투로 지난 8일 밀워키전에서 2.1이닝 동안 4실점 했던 부진을 만회했다. 볼넷 숫자도 당시 4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제구력도 안정을 찾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올림픽 야구대표팀 타격코치에 김기태 낙점

한국 야구를 수렁에서 구해낼 김경문호(號) 코칭스태프가 확정됐다.

11월 대만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 예선전에 나설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임명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경문 감독과 수석·투수코치인 삼성 라이온즈 선동열 감독은 12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

관에서 합동 인터뷰를 갖고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김경문 감독은 "선동열 코치,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의와 오진 회의를 거쳐 3루 수비 및 작전 코치에 김광수 투수 코치, 타격 및 1루 주루코치에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육성군에서 연수중인 김기태 코치를 낙점했다"고 밝혔다. 투산 수석코치인 김광수 코치는 김경문 감독을 지난 2년간 보좌해 대표팀에 전력 발탁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이전 '동계 강국'



안현수가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현수 대회 5연패

진선유는 3연패 달성

■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한국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남자 '간판' 안현수(한국체대)와 진선유(단국대)가 200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5연패와 3연패에 성공했다.

안현수는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7초177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찰스 해밀린(캐나다·1분27초217)을 따돌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현수는 5,000m 계주에서도 송경택(고양시청), 김현곤(강릉시청), 성시백(연세대)과 호흡을 맞춰 캐나다를 제치고 우승, 2관왕이 됐다.

앞서 500m와 1,500m에서 동메달을 땀던 안현수는 이날 3,000m 슈퍼 파이널에서 송경택에게 1위를 내주고 은메달을 따지만 중

합 점수에서 81점을 얻어 63점의 해밀린을 밀찌잡지 따돌려 종합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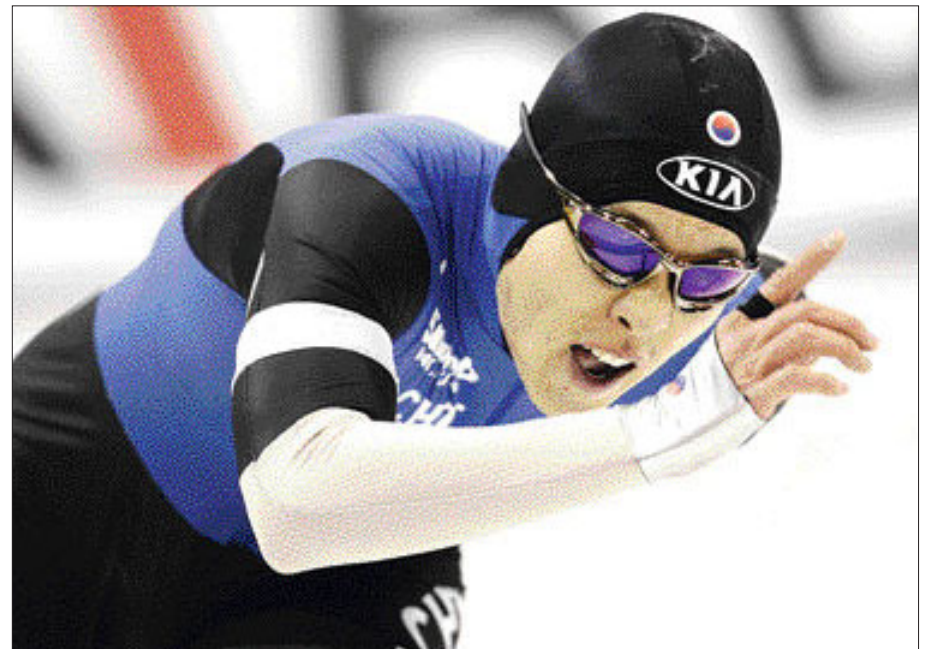
이로써 안현수는 지난 2003년 대회 이후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위업을 이뤘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5연패는 안현수가 최초이고 여자부에서는 은퇴한 양양A(중국)가 대회 6연패로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자부 에이스 진선유도 3년 연속 우승해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3관왕의 이름값을 했다. 진선유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1초622로 정은주(한국체대·1분31초777)를 따돌렸고, 3,000m 슈퍼파이널과 3,000m 릴레이에서도 우승,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종합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진선유는 앞서 1,500m에서는 동갑내기 정은주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2위에 그쳤으나 종합 1위에 오르면서 대회 3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한편 한국은 마지막 날 레이스에 걸린 금메달 6개를 싹쓸이해 전체 10개 종목 중 금메달 7개를 가져와 세계 최강의 면모를 뽐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문준(성남시청)이 12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올림픽오벌에서 열린 2007 ISU 세계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15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석 세계新, 이규혁·이상화 한국新 이어

문준도 1,500m 한국新

■ 빙속 세계 종별선수권

문준(성남시청)이 200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 몰이에 가세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문준은 12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오벌에서 열린 남자 1,500m에서 1분43초87로 결승선을 통과해 지난 4일 9차 월드컵에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기록(1분44초23)을 0.36초 앞당겼다.

지난 10일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4초2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일본의 가토 조지가 갖고 있던 종전 세계기록(34초40)을 0.15초 앞당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빙상특급' 이강석(22·의정부시청)의 세계신기록 우승 쾌거와 전날 이규혁(서울시청)의 남자 1,000m, 이상화(한국체대)의 여자 500m 한국기록 동반 작성에 이은 신기록 릴레이이다. 문준은 그러나 4위로 밀려 아깝게 동메달을 놓쳤다. 또 여자부 1,000m에 나선 이상화도 1분17초53로 20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